

지역 소식통

심덕섭 고창군수, 페이스북
주인공 소통 섬세행정 펼쳐

심덕섭 고창군수가 발빠른 소통을 위해 SNS(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심 군수는 SNS를 통해 쉽게 놓칠 수 있는 군정을 섬세하게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는 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 군수는 고창군수로 취임하고 더욱 활발히 업무 추진 및 현장방문 등의 내용에 대한 게시물을 SNS에 올리고 있다.

특히, 심 군수가 올리는 글과 사진에는 200~300명의 이용자가 '좋아요'를 클릭하고 있고 평균 20~30명이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또한 '공유하기'도 자주 볼 수 있다.

7월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민원이 많은 주곡회전교차로 교통환경 개선결과, 고창북분자를 활용한 간편식 등 주민 홍보·소통을 실천해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K-웰니스 푸드
투어리즘 페어 참가

부안군은 27~28일 2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2년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 참가하여 부안군의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에 나섰다.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는 온라인 영상메이킹 홍보전으로 현장에는 유튜브, 바이어, 쇼호스트, 기자단 등 관계자 500여명만 출입하고 일반 참가객은 모바일로 참석하는 신개념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관광과 특산품을 연계한 홍보전으로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전이다.

부안군은 문화관광과와 축산유통과 2개 부서에서 함께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부안군의 청자 등 다양한 관광기념품과 다양한 관광지 농특산물 등 부안의 자원들을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에게 설명하고,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기자

무장녹두숲자연장 개장

고창군, 자연 친화적 맞춤형 장사문화 선도

고창군에 2번째 자연장 시설이 들어서면서 자연 친화적 맞춤형 장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무장녹두숲자연장(무장면 반송길2)이 오랜 공사를 마치고 개장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북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무장녹두숲자연장은 화장문화를 대비하고,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비 40억



2400만원을 들여 무장면 고라리 공설 묘지 부지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관리사무실, 제례단, 주차장,쉼터, 안장지가 포함된 3만7681㎡ 부지에 안장기수 4060기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조성됐다.

/고창=김영식기자

무장녹두숲자연장이 개장되면서 고창군은 전라북도 최초로 공설 자연장 2곳(신림 푸른숲자연장, 무장녹두숲자연장)을 가진 지자체가 돼 명실상부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게 됐다.

지난 3월 최종 수탁기반으로 선정된 무장면체육회는 "지역내 조성된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무장녹두숲자연장 개장으로 고창군이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게 됐다"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고창군에서 전 생애 모든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가 정읍의 관문인 말고개 공원과 장명 배수지를 잇는 200m 길이의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고개 탐방로 연결다리 준비

정읍시, 기본구상 ·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정읍의 관문인 말고개 공원과 장명 배수지를 잇는 200m 길이의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도심권 숲길 네트워크 연속성 확보와 도심 탐방로 확보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몰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말고개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연결다리는 성황산 중턱과 칠보산 끝자락에 조성되며, 작은 정원과 산책로를 마련해 다리를 걸어가면서 아래 전망과 도심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스텝 단점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8일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말고개 숲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사업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한 연결다리 유형 제시,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말고개 연결다리 설치사업의 최적의 안을 도출해 도심권 숲길 탐방로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탐방로에 그치지 않고, 연결다리를 통해하면서 시가지 도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야간조명을 설치해 도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희수 시장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받은 물론,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아름답고 특색있는 연결다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형 사회보장 계획' 수립 전문가·관계자 회의

지역사회 서비스 추진방향 담야

정읍시가 공공, 민간 주민이 함께하는 중장기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에 나섰다.

정읍시와 정읍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 회의를 가졌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복지자원 등을 고려 해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 보육, 여성, 다문화 청소년, 고용, 노인 장애인 등 10개의 사회보장 영역별 전문가 토의와 지역주민 욕구 조사에 따른 분과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시가 공공, 민간, 주민이 함께하는 중장기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에 나섰다.

또 지역사회보장 세부 사업들의 적절한 반영을 위한 민·관 분야별 담당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치가 이뤄졌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정책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9월 말까지 추진되는 최종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매출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9월부터 12월 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관련해 시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 까지 컨설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들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정읍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1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가이다. 단, 프랜차이즈 업종과 단란·유흥주점, 안마사술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지참해 청년지원센터(1544-8834)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 내용은 주 1~2회 실전 창업을 위한 과제 중심의 전문 코칭과 전담 멘토가 배정되는 1:1 멘토링 로컬 창업가의 외부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컨설팅 수료자에게는 생고를 시장 인근(구 시가지출소 앞)에 자리한 공유 사무실(공유가게 3호점)에 입점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실제 창업할 경우 정읍시 청년발전기금을 활용 3년간 최대 1,500만원의 청년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동진면, 애플수박 로컬푸드 직매장 인기

부안군 동진면에서 재배한 애플수박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격포하노마트에서 불타게 팔리며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동진면 정진관 농가에서 기획생산물인 애플수박재배 지도 및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2021년 재배를 시작, '21년 1,000통 5백만원, '22년 2,000통 1천만원의 수익을 올려 계절대표상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농가는 "농산물 판로 및 재배기술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작물재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면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

어 신규 소득작물 재배에 부담을 덜었으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예전에 조공이나 가락시장 등 톨백단위로 판매하는 것에 비해 직매장 판매시 그때그때 소비자의 피드백을 통해와 고객 니즈와 성취감을 더 느낄수 있다"고 밝혔다.

부안로컬푸드직매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판로확보 및 소득작물 재배지도 등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